“친노·비노 언제까지 싸울거냐…당 위해 퇴진하는 용기 보여달라”

뿌리당원 6명이 말하는 새정치연합 현주소와 미래

혁신위, 당내 갈등만 부추겨
文대표가 비주류 껴 안아야
인재 양성 세대교체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뿌리당원들이 제시한 당 미래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계파정치 청산과 기득권 버리기, 선당후사(先黨後私), 지역인재양성 등이다.

이들 뿌리당원은 당이 처한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당의 독단적인 운영방식과 계파·분열정치론 당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김백규(72·당원경력 30년)씨는 “당 대표 하는 것 보면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 비주류(비노 등)도 안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 혁신하겠다고 해서 혁신위를 꾸렸지만 오히려 당내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 솔직히 말해 당원 활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설(67·당원 경력 30년)씨는 “현재 당은 친노 대 반노, 옛 민주당계와 열린우리당계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합이 되겠느냐”라며 “서로 계파간 기득권만 지켜려고 하는 상황에서 당내 화합이 되겠나. 이는 유권자들이 당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선당후사’와 ‘백의종군’ 정신이 부족한 점도 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김인순(여·66·당원경력 30년)씨는 “최근 호남에서 여러 인사들이 신당을 만들었는데, 사실 과거 민주당 인사들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당 인사들끼리 싸운다면 누가 이득을 보겠느냐”라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선 안 된다. 호남민심이 왜 떠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선 지역인재양성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를 위해선 과감한 물갈이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일문(73·당원경력 30년)씨는 “당내 인물이 뻔한 상황에서 당을 혁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당을 보고 있자면 마치 큰 돌들이 힘들게 자라나려는 새싹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일부 지도자는) 출사를 할 것이 아니라 처사(處士)가 돼 후배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종(67·당원경력 40년)씨는 “당을 보면 양보의 미덕은 사라지고 자신을 위한 감투싸움만 하고 있다. 겉으론 단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분산돼 있다”며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당을 전면 쇄신하기 위해선 현역 3분의 2 이상이 물갈이가 돼야 한다. 이것만이 기득권을 없애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18일 창당 60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시·도당 뿌리당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을 했다. 광주시당에선 모두 39명이 감사장을 받았다. 이들 뿌리당원은 최소 25년 이상 당과 동고동락한 원로인사들로, 그간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당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정치 ‘국정화 저지’ 전국 순회 버스투어 출발

시정연설 후 투쟁수위 높여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
감사청구·헌법소원도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가진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정부의 관보 고시가 예정된 다음달 5일까지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며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8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고 존엄 사업임을 못 박았다”며 “제왕적 불통령의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통령 연설을 듣다보면 정신적 분열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며 “국정화는 시대적 사명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참석하는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역사학자, 학부모, 교사들의 국정화 반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와 전국을 순회하는 ‘국정화 반대’ 투어버스 출정식을 갖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보 고시 이후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 우선 고시가 이뤄지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집필거부운동을 확산하고, 대안 교과서 제작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 고시가 나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지난 13일 고시 발표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예비비를 투입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정부의 추진 단계별로 논란을 불러올 휘발성 높은 쟁점인 만큼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삼아 국정화 철회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지역위원회별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한편 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 원외 지역위원장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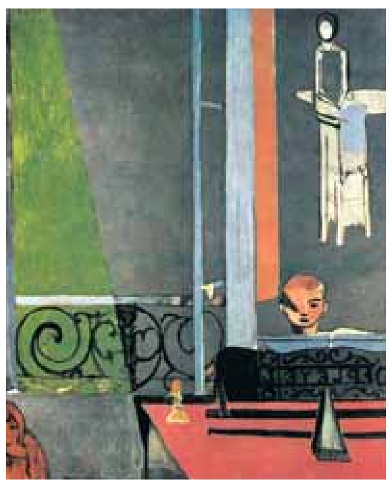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장외집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젊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박수를

김은영의 ‘그림 생각’

(133) 피아노


마티스 작 ‘피아노 레슨’(1916년)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폴란드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 내내 화제다.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하고 쇼팽 콩쿠르를 준비했다는 조성진씨의 인터뷰를 접하면서 오래전 보았던 영화 ‘피아니스트’(로만 폴란스키 감독)가 동시에 겹쳐진다.

영화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유대계 폴란드인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1911~2000)의 실화다. 지인의 도움으로 숨어 지내던 주인공이 빈 집에서 마주한 피아노 앞에서 허공을 향해 연주하던 장면이나, 폐허에서 독일 장교에게 발각된 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피아니스트로서 마지막을 각오하고 연주하던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멎을 것 같다. 그렇게 눈물겨운 연주로 전한 피아노곡이 쇼팽의 녹턴과 발라드였다. ‘쇼팽이 21세기에 환생했다’는 격찬이 아깝지 않은 젊은 피아니스트의 유럽 현지 중계방송 동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고단한 영혼이 축복받는 느낌에 잠겨본다.

춤, 음악 등 동적이고 시간적인 예술을 색채표현으로 즐겨 포착해 온 앙리 마티스(1869~1954)의 ‘피아노 레슨’(1916년 작)도 피아니스트가 거쳤을 과정이라 생각하니 정겹게 다가온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등 뒤에 앉아있는 인물은 아마도 레슨 선생님일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뽐내는 자녀의 연주모습에 대견해하는 엄마일지도 모른다. 매끈하게 붓질을 한 잿빛, 초록, 분홍의 큼직한 색면은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화면 속 인물의 감성을 실은 색채이었을 것이다.

“마티스는 색, 피카소는 형태.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두 화가” 칸딘스키의 표현처럼 피카소의 입체파가 형태에 집중하여 실험을 하였다면, 야수파의 수장이었던 마티스는 감정적 요인이나 회화를 이루는 색들 간의 균형에 관심이 많았다. 강렬한 색채, 대담한 구도와 충격적인 장식을 기꺼이 구사했던 마티스의 미의식은 한 세기를 넘어서도 여전히 새롭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국회 예결위 첫 날부터 파행

국회 예결특위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키로 한 정부 결정과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공방 끝에 정회하는 등 한때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44억원이 책정된 예비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예비비는 예결위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꼼수’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넘게 예비비 자료제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언쟁만 이어지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양당 간사의 협의를 주문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측은 예결위를 일단 진행하되 관련 자료를 29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예결위를 정상화시켰다. 하지만, 예비비 자료 제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6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 접수기간 2015.10.29(목) 10:00 ~ 11.16(월) 17:00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http://www.jinhak.com(진학사어플라이)
- 모집인원 석사 350명, 박사 288명
- 입학문의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062)230-6401~5

BK21플러스 사업 장학금 7년간 100억
(경영학과/국어국문학과/문화학과/생명과학과/약학과/제어계측공학과/컴퓨터공학과)

산업융합특성화인재양성사업 5년간 29.7억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

뿌리산업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5년간 30억
(용접·접합과학공학과)

FTA활용전문인력양성사업 연간 8,930만원
(FTA비즈니스학과)

빛가람 장학금 신설

조선대학교